

## 2. 日本 New Japan Hotel 火災의 問題點

1. 發火日時：1982年 2月 8日(發火時間은 調査 中)
2. 發火認知時間：同日 03時 39分 10秒
3. 火災申告：上記 시각에 通行人이 消防署에 申告, 호텔 종업원의 申告는 同日 03時 39分 50秒
4. 鎮火時間：同日 12時 36分
5. 所在地：東京都 千代田區 永田町 2-13-8
6. 建物構造：鐵筋 Concrete 建, 地上 10층, 地下 2층
7. 延面積：46,697 m<sup>2</sup>
8. 收容人員：2,946名(客室數 513室)
9. 被害狀況：① 死亡 33名(男 22名)
  - ② 負傷 34名
    - 重傷 7名
    - 비교적 큰 상해 14名
    - 輕傷 13名
  - ③ 燒損바닥면적 4,380 m<sup>2</sup>
    - 9층~1,920 m<sup>2</sup>
    - 10층~2,440 m<sup>2</sup>
    - 옥상~20 m<sup>2</sup>

### 10. 호텔 火災의 문제점

同 호텔의 罹災直後 日本 消防當局에서는 1966년까지 소급해서 호텔火災事故의 경위를 再檢討, 分析하여 금번 뉴재팬 호텔火災와 對比, 호텔火災의 獨特한 傾向을 파악 報告하고 있는 바, 종래의 호텔火災와 이번 火災事故가 延燒經路, 건물방화관리상의 問題點등에서 거의 共通된 樣狀을 보이고 있어 消防關係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火災現場을 답사한 專門家들이 異口同聲으로 「20年前의 火災事故와 다를 바 없다」고 慨歎하고 있어 防災面에서 先進國으로 자부하고 있는 日本人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日本 消防關係專門家들이 호텔火災의 문제點으로 指摘한 內容이며 금번 뉴재팬호텔의 火災에서도 例外없이 해당되는 事項들이다. 이 項目들은 우리나라 特殊建物の 點檢結果와 매우 類似하여 點檢員들의 關心이 모이고 있다.

#### 가. 防火區劃의 결함

區劃未設置, 完全밀폐 안됨, 방화문 作動不良, 可燃性材料로 구획

#### 나. 內裝材의 결함

易燃性 內裝材 使用, 칸막이등의 규정 위반

#### 다. 增·改築의 문제

增·改築에 따라 建物內部가 迷路狀으로 되어 罹災時 연기의 擴散擴大에 따라 避難이 매우 困難라. 初期消火의 失敗

火災를 早期發見하지 못함(自動火災探知設備의 作動不良, 受信機의 스위치를 OFF 위치로 내려둔

事例가 압도적 多數임)

以上の 4 가지 要素를 日本人들은 防災하드面的 「BIG 4」라고 稱하고 있으며 이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具體的인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水平面에의 延燒〉

- ① 延面積 1,500 ㎡마다 방화구획을 設置하는 것이 不充分하지 않은가?
- ② 客室相互의 間壁과 天井속까지의 구획에 重大한 결함(완전밀폐 안됨, 可燃材 使用)이 있는 것이 아닌가?
- ③ 客室의 開口部 또는 출입문등의 閉鎖기능에 지장이 있든가 可燃材로 마감하지 않았는가?

〈垂直面에의 延燒〉

- ① 客室의 파이프類, 다투類등 上下층을 貫通하는 配管類 주위의 밀폐상태는 완전한가?
- ② 防火壁이 完全하지 못하여 階段室, 엘리베이터 샤프트등이 廣大한 延燒經路가 되지는 않았는가? 또 방화문중 一部가 正常으로 作動하지 않아 有事時 閉鎖되지 않은 경우는 없는가?

이처럼 現代의 都市型 호텔에는 눈에 띄지 않는 基本的인 構造的 결함이 있다고 判斷하고 있으며 火災發生時에 防火區劃의 不備나 결함은 致命的인 悲劇의 要因이 되는 것으로 結論짓고 있다.

上述한 防災設備面(防災하드面) 以外에 建物の 安全管理(防災소프트面)에 대해서도 같은 比重을 두어 그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으며 특히 消防當局의 豫防査察의 한계점 및 關係法令과 制度上의 未備點을 防災소프트面に 포함시켜 조속히 解決해야할 문제點으로 提示하고 있다.

日本의 防災專門家들이 提起한 호텔火災 豫防을 위한 이와같은 問題點들은 當協會 點檢員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